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만약 그대에게 '삼독·오독심'이 없다면

목적지에 가까워졌으니

강력한 해독제로 대처하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오독(탐·진·치·질투·아만)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증오 때문에 싸우는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걱정에 자유로운 통치기간을준다면 그 기간 동안에 걱정은 당신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근원을 찬찬히 분석해 본다면 사실 그 본질은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컨대 괴로운 감정이라는 것은 실은 여러분이 거기에 부여한 힘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듭 그 감정에 빠져들지 말고, 한번 거기서 벗어나 보십시오. 그 순간 해탈에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성취를 위해 당신은 강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승의 가르침은 그다지 당신을 도와줄 수 없게 되고 수행은 아무 진척이 없을 것입니다. 스승은 당신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하지만 대신 깨우쳐 줄 수 없습니다. 스승은 길을 보여주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정이 매우 강력한 것이라면 해독제 또한 그만큼 강력한 것으로 맞서야 합니다. 중독된 나무를 없애려면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가지치기로는 불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의 뿌리를 뽑지 않는 한 이들은 자라고 또 자라고,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될 자랄 것입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시국선언, 갈등보다 ‘경종’ 역할을”

조계종 화쟁위, 3일 종교인 시국발언 주제 야단법석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으로 불거진 종교계의 시국 발언과 이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결사모임 붓다로 살자는 공동으로 1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종교인들의 시국 발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야단법석을 개최했다.

이날 야단법석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좌장으로, 화쟁위원장 도법스님, 성연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 인명진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경민 민주당 국회의원,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홍성걸 국민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날 대다수의 발제자들은 종교인의 시국발언에는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성연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는 “성직자의 정치 개입은 조작과 권력구조에 참여하는 경우”라면서 “가톨릭은 공공선을 추구하고 공공선은 정치를 통해 현실화되기도 한다. 정치가 잘못될 때에는 분명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상에 대해 발언하지 않는 종교는 ‘죽은 종교’이며 종교인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한 신경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문제는 정치권과 언론이 나서서 시국선언을 한 종교인들은 ‘총복’으로 물고 있다는 점”이라며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은 항상 종교계에 침묵을 강요해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모든 사안을 진실과 균형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스님은 “간디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어느 편에서 있지 않았다. 진리의 편에서 있었다”면서 “진실과 균형이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인의 시국발언은 문제없지만 특정 정파의 의견에 동조해 사회 갈등을 초래하

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는 분명 정부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 안보에 위협적인 발언을 했고 갈등이 불거졌다”면서 “종교인들은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행복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갈등을 조장하고 저주가 섞인 언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도 “정치가 역할 못할 때 종교계가 시국발언을 해왔고 긍정적

기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특정 정당이나 정파 입장에 서서 대통령 사퇴 등을 언급한다는 것은 범주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인들의 강론, 종교 활동에서의 시국관련 발언은 사회의 위험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이를 넘어 특정 정파 입장에 동조하면서 오랜 기간 일관된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12월 3일 ‘종교인 시국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를 주제로 야단법석을 개최했다. 사진은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조계종 34대 총책과제 수립 첫 대중공사

12월 2일 차림장 80여명 참석

조계종 총무원이 34대 집행부 총책과제 수립을 위한 첫 대중공사를 가졌다.

조계종은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총종과제34대 집행부 총책과제 실현을 위한 중앙총무기관 대중공사’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대중공사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교육원장 현웅스님, 포교원장 지원스님을 비롯한 중앙총무기관 부실국장스님, 차·팀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중공사는 34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공약을 검토해 34대 집행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로, 이날 정리된 내용은 2014년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총무원 사업계획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대중공사에서 자승 스님은 “34대 집행부 총책은 안으로는 사부대중의 간절한 여망과 밖으로는 시대와 사회가 불교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주문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아직은 무뎠던 바위덩어리에 불과한 총책사항을 잘 갈고 다듬어 금강석으로 빛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원장 현웅스님도 “34대 총책과제가 대내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불교의 지표인 스님과 사찰, 신도, 사회와 국민 등 크게 세 가지로



조계종은 12월 2일 제34대 집행부 첫 대중공사를 열었다.

나뉘 총책을 추진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중공사에서는 이상봉 전 불교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이 ‘중단 10년 통계분석 결과 및 연구소 주요 정책 분석내용 보고’를, 김용구 기획팀장이 ‘제34대 집행부 총책과제 수립방안 보고’를 각각 발표했다.

이밖에 선거 첫 공약이었던 교구중심제를 검토하기 위해 ‘교구본사와 중앙의 균형발전’ ‘조계사 총본사 성역화와 견지동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 ‘승가복지 전면 실현’ 등을 논의했다. 또 자성과쇄신 결사 지속 추진, 승가의 사회적 권위와 교육, 수익법인 붓다드림 설립, 신도조직화와 전법활성화 등도 총책 과제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일 기자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 임명

자승 스님, 논란에도 4일 임명장 수여...연수원장 구과 스님

선본사 성본, 보문사 등목 스님

불교중앙박물관 관장 덕문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4일 봉은사 신임 주지 원학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봉은사는 조계종 직영사찰만큼 종단의 결사와 쇄신을 이끌어 가는 데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학 스님은 “중단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결단을 내린 뜻을 이해하고 열심히 정진하겠다”며 “자성과 쇄신 결사가 진행되

는 판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 이후 ‘논공행상’ 인사로 문제가 된 원학 스님의 주지 임명에 대해 여론의 시각은 좁지 않다. 참여불교재가연대 산하 교단자성센터가 12월 4일 원학 스님의 주지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편, 선본사 주지에는 성본 스님이, 보문사 주지에는 등목 스님이, 불교중앙박물관 관장에는 덕문 스님이 임명됐으며, 등문들과 함께 하는 슬자리를 열어 해임된 초역 스님을 대신할 한국문화연수원장에는 구과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2월 4일 신임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대선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덕진 진일 대종사
초대종정 범왕 동산 대종사
부 종 정 적연 운암 대종사

총무원장 : 현묵 혜승 교육원장 : 적공 현덕 총회의장 : 현숙 법희 선원장 : 적우 청화 문화원장 : 대원 무령 감사원장 : 법규 대경
총무부장 : 각진 보각 포교부장 : 도승 교육부장 : 평상 도응 사회부장 : 영각 재무부장 : 보각 사서실장 : 대안
총회사무국장 : 법성 교무국장 : 보혜 연수국장 : 도만

총회의원 : 경성, 도경, 원명, 보찬, 도광, 보성, 보현, 혜성, 혜광, 성관, 도민, 법승

대선불교조계종법사회

법사회장 : 법산(신동호) 총무국장 : 송천(김문찬)
신도회총무 : 보리심(신순임) 덕양(서재원) 광덕(문도순) 도응(최순락) 학산(김대철) 준범(최형성) 남산(문동식) 덕산(심규봉) 덕연(황우연)
거산(김금석) 법경(윤석진) 명주(이재금) 법등(박영희) 보연(정연숙) 보경(김금전)

입종안내

(사)대선불교조계종은 자각각타(自覺覺他), 각타원만(覺他圓滿), 원돈성불(圓頓成佛)한 부처님의 교리를 봉체(奉體)하고 종조(宗祖)의 본지(本旨)를 다시 밝혀 불조의 혜명(慧命)을 이어 나가려는 시대적 사명감과 대원력(大願力)으로 수심(修心)하여 대선조계(大禪曹溪)의 종명을 공칭하고 종헌종법으로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나갈 사·암스님 창건주, 교인 법사님들을 가족처럼 입종을 환영합니다. (상세한 것은 총무원에 문의 바랍니다.)

◆종정주석사찰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 2동 2040-3 (011-529-3132)
◆총무원 : 인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64번지 총무원장 혜승(010-3190-5767) E-mail : bada4431@hanmail.net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불기 2557년 종무결산 및 송년법회

- 일시 : 2013년 12월15일 일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1103번지(3층) 짝 라이브
- 문의 : 053) 959-3388, 010-3812-0419